



화장실에서 물을 절약하자

정기연 전 영암 신북초등학교 교장

칼럼

사람이 살아가는 데 가장 필요한 것은 물이며 상수도 물은 돈을 주고 사서 사용하기 때문에 물의 절약은 돈의 절약이다.

기자는 지난 1월 17일 비뇨기과 질환으로 광주보훈병원에 입원하여 진료 받으면서 14일간 치료를 받고 퇴원했다. 입원실은 6명 1실이었지만 화장실이 1개 있어 화장실을 자주 드나드는 비뇨기과 환자는 다른 환자에게 불편을 주어 화장실을 가지 않고 플라스틱 소변기(요강)에 편리하게 소변을 보았고 퇴원해서도 그 용기를 집으로 가지고 와서 사용하고 있다.

가정집이나 병원에는 좌변기가 있는 수세식 화장실이 있으며 남녀가 공용으로 사용하며 그 물통은 모양은 다르나 120~140이며 한 번 사용으로 물통의 물이 전량 소비됨으로 화장실에서 물 절약에 관한 관심을 두게 한다.

우리나라는 유엔이 정한 물부족국가인데 가정에서 물을 많이 사용하는 곳은 음식물을 만드는 주방과 수세식 화장실이다. 어떻게 하면 물을 절약하면서 사용의 목적을 달성할 것인가가 관심사며 국가 사회는 물 절약과 이용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추진한다.

물의 사용은 상수도 요금과 관계되며 물 사용량 자체가 돈으로 환산되고 있으므로 물은 돈이다. 물을 절약하는 것은 상수도 요금을 절약하는 것이다.

병원에는 입원환자가 있는 병실이 있고 그에 딸린 화장실이 있는데 큰 병원은 한 달 상수도 요금이 많이 나가고 있으며 그것은 화장실 물 사용에서 비롯되고 있으나 병원장은 이에 관한 관심과 대책에 소홀하다. 광주보훈병원은 한 달 상수도 요금이 천만 원이라 한다. 화장실 물 절약에 관한 정보를 전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병원장은 기사를 만나주지도 않았다.

가끔 심했던 지난해는 물 부족으로 가정에서 물을 많이 사용하는 화장실 물 절약에 대해 관심을 두고 창의력을 발휘해 추진했으며 새로운 물 절약 발명특허가 나왔다.

광주 남구 주월동 거주 서영성 씨(94세)는 평소 화장실에서 물 절약에 대해 관심을 두고 5년간 실험 연구하여 2022년 11월에 화장실 절수장치 연구로 발명특허를 획득했다. 그 내용은 화장실의 물통 120~140 물통에서 40만 사용되고 그 2/3인 80~100 물이 절약 사용되는 획기적인 물 절약 발명특

허인데, 설치 방법은 기존 설치된 물통의 뚜껑을 열고 발명된 부품 두 개를 손쉽게 끼우면 된다. 이것이 알려지지 않아 시중에 설치되어 있는 12~140 물통은 한번 사용으로 전량이 소모되고 있다.

환자들이 많은 입원실은 화장실 물의 사용이 많아 병원장은 화장실 물 절약에 대해 관심을 두어야 하는데 이에 관한 관심이 없다. 화장실에서 물 절약의 방법으로 화장실 물통에 발명특허 부품을 부착해 절약형으로 설치하던지, 화장실 이용 횟수를 줄이는 방법이 필요하게 되었는데 여기에 등장한 것이 요강들이 사용한 방안에서의 요강 사용 문화다.

요강은 소변(尿) 통을 말하는데 소변이 마려울 때 화장실에 가지 않고 통에 소변을 보고 모아 한꺼번에 버리는 것인데 우리 조상들이 단독주택에서 화장실이 떨어져 있는 실내에서 즐겨 사용하던 생활필수품이다. 이것이 주거문화가 바뀌고 아파트가 되고 수세식 화장실이 되면서 사라졌다. 그러나 소변을 자주 보는 환자에게는 절대 필요한 것이며 특히 입원환자가 많은 병원에서는 소변을 요강에 봐서 한꺼번에 버리게 해야 물 절약도 되고 환자도 편하다.

이러한 요강 문화가 병원의 무관심으로 사라진 것은 유감인데, 조상들의 창의 정신을 이어받은 우리 민족은 요강을 개조하여 재질을 사기에서 플라스틱으로 바꾸었고 모양도 손잡이가 달리고 뚜껑이 있는 것으로 바꾸었으며 남녀의 용기가 따로 나와 있어 편리하게 선택해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물 부족국가에서 상수도 물 사용을 줄이고 그에 따른 수도 요금을 절약하려면 화장실의 물통에서 사용되는 물의 양을 줄여야 하며 그렇게 하려면 물통에 발명품 부품을 삽입해 개조해야 하며, 화장실 사용 횟수를 줄이려면 요강 사용을 권장해야 한다.

지금은 정보화의 시대다. 새로운 정보에 늦고 어두운 뒤떨어져 불행하게 된다. 물 절약에 대해 관심을 두고 계획을 세워 추진하는 국가 지자체 직원들은 물 절약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여 홍보하고 시설을 개선하여 물 절약 선진국 복지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

‘통일’ 그 시작은 정남진 장흥에서

김성 장흥군수

기고



요즘 젊은 세대들에게 남북통일에 대한 생각을 물어 보면 특별한 관심이 없거나 ‘굳이 왜 통일해야해?’라는 냉소적인 반응을 보인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정말 통일이란 것에 대해 한번 깊이 생각해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통일을 우리에게 좋은 점이 무엇인지 나쁜 점이 무엇인지 이분법적인 차원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쉽다는 것이다.

현재 북한은 어떠한가? 이미 국제사회와의 대화와 협상에 자제적인 입장을 고수하며 핵무기 개발과 미사일 발사 등의 도발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 UN을 중심으로 많은 기관과 국가들이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실시하려 하지만 모든 지원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는 북한과의 관계를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동서 냉전체제 하에서 분단을 경험하다가 통일을 성취한 독일은 본보기로 삼을 수 있다. 통일 독일이 주는 가장 큰 교훈 중 하나는 국민들 사이의 통합과 화합을 촉진하면서 이념적 격차를 해소한 것이다. 공동의 정체성과 공유된 가치관을 함양했다는 것이다. 또한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공유할 수 있는 전통·예술 그리고 가치를 통해 통일감을 길러주었다는 것이다.

통일한국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가적이고 사회적인 차원에서의 준비와 노력만 만 아니라, 개인의 통일한국에 대한 관심이 중요하다. 또한 다양성에 대한 존중과 이해도 필요하다. 다양성의 기본적인 전제는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다. 다양성이 존중되지 않으면 차별이 발생하며 이는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인권과 정의라는 기본 가치를 훼손하게 된다. 지난 70여년 동안 상이한 환경에서 살아온 남한과 북한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하는 것이 꼭 필요한 우리의 자세라 생각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노력도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는 일반적인 지방자치단체의 국내외교류와 달리 상호 이익도모가 일차적인 목적이 아니다. 기능적 동질성의 회복을 통하여 남북 상호간 신뢰구축을 제고하는 데 근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초기에는 실현가능성만 담보되면, 보다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다양한 남북교류가 추진되는 것이 목적에 부합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역사는 발전의 연속이 아니다. 인류 역사를 돌아보면 세계대전, 대공황처럼 일시적으로 정체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정체를 극복하고 항상 새로운 발전을 이루어 왔다. 이는 남북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지난 반세기가 넘는 분단 기간 동안 남북관계는 정체와 발전을 반복하면서 꾸준히 진전되어 왔다. 한반도 통일은 거스를 수 없는 역사적 흐름이며,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다.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몫이라고 한다. 현실에 안주하거나 낙담하지 말고 차분히 미래를 준비할 때 밝은 미래를 성취할 수 있다는 의미일 것이다. 이제는 통일을 먼 미래의 이상이 아니라 구체적인 현실로 만들기 위한 모두의 마음을 모아야 할 시점이다.

3월, 새봄 새학기의 시작이다. 교정에 오가는 학생들의 활기찬 모습에서 우리나라의 밝고 희망찬 미래를 본다. 그리고 언젠가는 남북의 학생들이 함께 어울려 교정에서 즐겁게 공부하는 통일한국의 봄날을 기대한다.

외부 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호남신문 i-honam.com 대표전화 (062) 229-6000
광주서우문천로 213 스카이랜드 309호

발행인·편집인 김순열 편집국장 서선옥

동부취재본부 전남 순천시 유동3길 26 서주빌딩 101호 (061) 905-2011

서부취재본부 전남 나주시 왕건길 33-14 (061) 333-0805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직통 (062) 228-2580 팩스 (062) 222-5547

등록번호 광주가 00021 (일간) /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 쇄 mpn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QR코드 찍기 전에 한번 더 확인하세요

기고

정선하 고흥경찰서 경무계 경위



최근 MZ세대들도 당한다는 쿼싱 피해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 쿼싱은 QR코드와 피싱(Phishing)의 합성으로 QR코드를 이용한 사기수법이다.

피해사례로 A씨는 소상공인 저금리 대출과 관련된 메일을 받고 은행 직원의 지시에 따라 QR코드를 찍어 악성앱이 설치되어 1,000만원이 계좌에서 빠져나갔고 B씨는 스마트 뱅킹을 통해 이체를 진행하던 중 QR코드가 포함된 문자를 받았고 은행 인증 문자로 생각해 앱을 설치 후 보안카드를 촬영해 보내자 35만원이 소액결제되는 피해를 당했다.

쿼싱 사기범죄 건수는 전년 대비 6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찰청이 공개한 사기 진행절차는 ▲금융범죄자가 가짜 금융사이트로 유도, ▲인증이

필요한 것처럼 QR코드 제시, ▲QR코드를 찍어 악성 앱이 설치된 순간 개인정보 탈취로 이어지게 되며 금전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

쿼싱 범죄 피해를 예방하려면 출처가 불분명한 QR코드는 촬영하지 않아야 하며 특히 공공장소에 공개되어있는 공유자전거, 출입 등록, 결제 등 QR코드를 스캔할 때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또한 기존 QR코드 위에 스티커가 덧붙여지지 않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으며 혹시나 무심결에 인터넷 링크 주소를 클릭했다더라도 개인정보를 입력하거나 앱 설치하는 하지 말아야 한다. 앱을 설치한 순간 기존 메신저 피싱처럼 금융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변종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응을 부탁드린다.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의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행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 입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된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